

6년제 의과대학 학제 개편 논의에 대한 제언

윤 보 영

인제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문위원
byyoon@inje.ac.kr



〈편집자 주〉 최근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예과와 의학과의 통합 6년제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있었다. 마침 약학대학이 2+4 혹은 통합 6년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상황이어서, 의과대학 학제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의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게 학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한국 의과대학 학제의 역사

의과대학 학제는 크게 2+4 학제(undergraduate-entry program)와 4+4 학제(graduate-entry program)로 나눌 수 있다[1]. 2+4학제는 의과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2년간 의예과 교육과 4년간 의학과 교육을 거쳐 총 6년의 의학교육과정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는 학제이다. 4+4 학제는 의과대학이 본격적인 의학교육 전 교육을 운영하지 않으며 학사 학위를 소지한 신입생을 선발하여 4년간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권의 의과대학은 2+4 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권은 4+4학제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학제에 따라 1924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예과를 선발한 것이 우리나라 의과대학 2+4학제의 시작이다[2]. 오랫동안 학제의 변화가 없다가 1990년대 말부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존 학제에 대한 개혁과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의과대학으로 유입되어 의학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점을 부각하면서 2005년 우리나라에서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었다. 정부 중심의 적극적 유인과 규제로 당시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부 또는 전면 전환하였다[3]. 이 중 전면 전환한 15개 대학은 의예과 2년을 폐지하였으며 두 학제를 병행하는 학교는 의예과 2년 과정을 더욱 독립된 교육과정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의예과 2년을 마친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함께 의학과 1학년으로 교육하였다.

논의의 시작

불행하게도 의학전문대학원체제는 오래 가지 못했고,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 자율화에 따라 3개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4 학제로 회귀하였고 의예과가 부활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해 수험생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리는 문제로 비판받았다[4]. 단시간 학제의 요동으로 인해 의과대학 체제, 의사양성과정에 유입된 새로운 인적 자원, 이로 인한 조직의 변화뿐 아니라 입학생, 학부모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지만 의사양성체제에 대해 의학교육 관계자 내부로부터의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의예과 교육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하였고 특히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던 많은 학교에서는 체제 상으로도 의예과가 의과대학의 일부라고 볼 수 없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전 의예과가 대부분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던 대학 일부에서 의예과를 부활시키면서 의예과를 의과대학 소속으로 변경하는 기회로 삼았다[1]. 체제의 변화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자들은 의예과 2년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의과대학과 전통적으로 의예과를 의과대학 소속으로 두었던 대학들도 의예과 교육에 집중하지 않았던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턴 선발 과정에 의예과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대학입시의 고단함과 앞으로 다가올 의학과 공부의 무게는 의예과 학생들의 무한 자율을 보장해 주었으며 교육철학사 중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방임형 인본주의를 실천해 왔다.

의학교육에 역량(성과)바탕교육의 개념이 유입되었고 의예과 과정이 전공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임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각 학교 단위[5-7], 의학교육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의예과 교육의 개편과 논의를 활발히 하게 되었다[1].

그러나, 단순히 의예과 교육을 강화하거나 내실화 하자는 논의에서 더욱 확장되어 2+4 학제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6년 의과대학 시기를 관통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설계에 관심을 갖는 의학교육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로 다른 현실과 시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에 “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하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령을 근거로 의예과를 의학과 독립된 과로 규정한다고 본다.

의과대학이 중심인 사립대학들 중에는 의예과 교육과정 구성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2+4학제 내에서도 6년을 전체로 보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교도 있다. 이들 학교는 태생적으로 본대의 자연과학대학 보다 의과대학의 역량이 높아서 기초과학이나 인문 교양 교육의 일부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양과목 및 선택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인간으로서 소양을 쌓거나 다양한 타 전공에 대한 이해를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의예과 시기부터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접촉면이 넓으며, 의예과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들 학교의 경우는 2+4학제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종합대학이 먼저 발달하고 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대학교의 경우 의예과 시절 다양한 인문 교양, 예술 과목 등을 접할 수 있고 다른 전공자들과 어울려서 학습하고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상황의 의과대학은 의예과 교육의 개편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타 단과대학을 설득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가적인 업무로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여러 사정으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으로 의과대학을 6년제로 규정해준다면 일이 쉬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통합 6년 학제 개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의예과 시기에 갖추어야 할 역량(인성, 소통, 협력 등)과 교양 교육(철학, 문학, 역사 등)을 충분히 갖추는 시기인 2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중한 의학과 학업이 자칫 의예과 시기로 옮겨와 의예과 교육을 약화하리라는 우려를 하는 교육자들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교육자들은 현재 2+4 학제가 의예과 고유의 교육을 위한 시간을 방어해 주는 조치로 생각할 수도 있다.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뒤늦게 의학의 길로 들어서는 대학생들이나 다른 이공계 전공자들의 기회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3개의 의학전문대학원만 남은 상태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할 희망하는 예비 수요자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통합 6년제 학제를 개편하면 의과대학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고 소수의 편입생을 받아들이는 시기나 조건도 다양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다시

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의사 집단과 의학이라는 학문에 유입하는 인적 자원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의 무게 중심

의과대학의 존재 이유는 사회구성원이 기대하는 좋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좋은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의 사명을 실현하는 도구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하여 2+4 학제가 어떤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두고 그 해결책으로 학제 개편이 가장 절실하고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4+4 학제가 도입되고 쇠퇴하는 역사를 보면 도입할 때마다 기존 학제로 돌아갈 때 해당 학제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의학교육계와 사회구성원이 충분히 했는지 반성하게 된다. 좋은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논의하는 일이 우선이며 같은 관점으로 6년제 의과대학 학제 개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018년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에 대한 결정과 법령 공포가 있었다.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과, 학부에서 2년 이상을 마친 학생들이 자격시험(PEET)을 통해 편입 형태로 4년의 전공 교육을 이수하는 형태(2+4년제)였다. 이공계 학생의 이탈과 공동화, 사교육비 문제, 전공교육에 들어가기 전 사전 준비도의 편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7].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2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6년 동안 기초, 소양교육과 전공 교육을 이수하는 통합 6년제 약학대학으로 학제(통합 6년제)를 추가하고 대학이 두 학제 중 자율적으

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주목할 점은 약학대학을 예과 2년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약학대학에서 기초, 소양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교마다 다양성의 여지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의사 배출 시점까지 2+4년제와 최근 제안하고 있는 통합 6년제는 차이가 없다.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간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당시에는 중요한 논점이었지만 현재 논의하는 두 학제는 의사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두 학제는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학교육의 질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의학 교육자들은 최근 3-4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의사의 역량은 무엇인지, 어떻게 함양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를 양성해야 할 의과대학이 현재의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미래의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전문직의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이고 자신 고유의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도태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8]. 다양성이 절실하고 혁신이 필요하다. 경직된 입시제도와 학제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전문가 집단에 합류할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학교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제도에 생산된 전문인은 미래의 의사가 되어도 유연성을 잃기 쉬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의과대학이 하나의 학제를 선택하고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제와 정부 모두 학제의 통일을 위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학교마다 구성원들이 현재의 교육과정을 평가하

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학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학제가 2+4년제이든 통합 6년제이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과대학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 6년제가 새로운 학제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학교육의 다양성은 질적인 변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교육계는 이미 다른 어떤 전문직 집단보다 일찍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평가와 개선을 주도해 왔다. 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부터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고등교육법의 통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물적,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견인 역할을 해왔다. 의과대학이 어떤 학제를 선택하더라도 의학교육의 핵심 목표와 시행, 달성 여부는 의학교육인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우리나라 의사 양성 체계로서 학제의 역사를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통합 6년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통합 6년제는 새로운 학제가 추가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설계, 실행하여야 한다. 학제의 다양성은 교육과정의 수월성과 창의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4+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2+4년제] 의예과 2년+의학과 4년	[통합 6년제] 의학과 6년
면허시험응시	면허시험응시	면허시험응시
4 3 2 1 의학전문대학원 (전공교육)	4 3 2 1 의학과 (전공교육)	6 5 4 3 2 1 의학과 (교육과정 자율운영)
선발시험	의예과 (기초, 소양교육)	선발시험
4 3 2 1 이공계열 전공	선발시험	

그림 1. 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제와 새롭게 제안하는 통합 6년제의 비교

 참고문헌

- [1] 이병두, 이승희, 강화선, 김도환, 유동미, 윤보영, 정은경, 정춘희. 의예과 교육설계 및 운영안내서. 한국외과 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교육문화원. 2017
- [2] Jung, H., &Yang, E. B. A Study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Directions of Premedical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7;19(3):115-120
- [3] 왕규창. 의학전문대학원 실행 과정에 드러나 문제점 고찰. 의료정책포럼. 2008
- [4] 김춘진, 신상진, 박영아.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10
- [5] Yoo, D. M., &Kang, W. S. Introduction of Premedical Curriculum at th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7;19(3):129-133
- [6] Yoon, H. B., Lee, S. H., & Hwang, J. Premedical Curriculum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7;19(3):134-137
- [7] Yoon, Y. S., Yoon, B. Y., Jung, D. U., Lee, J.T., & Ju, H. Development of Premedical Curriculum in Inje University's College of Medicin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7;19(3):145-148
- [8] 서인영, 홍영란, 하연섭, 이원용.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7
- [9] Richard Susskind, Daniel Susski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he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